

배우 정경호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고, 정말 집중해서 하고 싶다”

영화 ‘압구정’ 성형외과 의사 ‘박지우’ 역
데뷔 전부터 알고 지낸 마동석과 첫 호흡
“어릴 땐 제 멋에 취해 연기하기도 했다”

“어릴 땐 제 멋에 취해서 연기할 때도 있었어요. 이제는 책임감을 느껴요. 정말 열심히 연기하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오지 않을 거예요.”

배우 정경호(39)는 “연기를 너무 잘하고 싶고, 정말 집중해서 하고 싶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도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기”라고 했다. 2004년 드라마 ‘미안하다, 사랑한다’로 데뷔해 단번에 스타가 돼 10여년 간 영화·드라마를 오가며 활약했지만, 예상보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다. 정경호 연기 경력에 전환점이 된 작품은 30대 중반이 돼서야 만난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2017)이었다. 고도소가 배경인 이 작품에서 그는 간수 ‘준호’를 맡아 새삼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후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리즈(2020~2021)에 출연, 조정석·유연석·김대명 등 또래 배우들과 인상적인 앙상블은 물론이고 깊은 감정 연기로 호평을 이끌어냈다. 그러니까 정경호의 진짜 전성기는 데뷔하고 나서 20년 가까이 흐른 이제서야 막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는 이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듯했다. 최근 영화 ‘압구정’ 개봉을 앞두고 만난 정경호는

“예전에는 좋은 기회가 좋은 기회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연기하고 있다”고 했다.

‘압구정’은 배우 마동석과 함께한 영화라는 점에서 정경호에게 남다른 감회가 있는 작품이다. 정경호는 데뷔하기 전부터 마동석과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정경호도 마동석도 오디션을 보며 배우를 꿈꾸던 시절이었다. 뜻나기였던 두 사람은 이제 완숙한 배우가 돼서 한 영화에서 만났다. 그 사이 마동석은 한국영화계를 대표하는 액션배우가 됐고, 정경호는 자기 영역을 구축한 베테랑 배우가 됐다. “함께 일해보고 싶었는데, 인연이 안 닿았어요. 이제야 같이 하게 됐네요. 워낙 좋아하는 형이라 이번 작업이 정말 좋았어요.”

‘압구정’에서 정경호는 성형외과 의사 ‘박지우’를 연기했다. 최고의 실력을 가진 의사이지만, 음모에 빠지면서 사재 빚을 갚는 신세가 된 인물이다. 박지우는 압구정 토박이 ‘강대국’(마동석)을 만나 다시 한 번 대형 성형 병원 원장으로 올라서게 되고 제2의 전성기를 맞는다. 코미디 영화이기 때문에 가볍게 연기했을 것 같지만, 박지우를 연기하

는 게 정경호에게 쉽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모든 연기를 통틀어 남을 웃겨야 하는 코미디 연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다”고 했다. “연기하는 사람들끼리 웃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까지 웃게 하는 건 보통 일이 아니죠.” 특히 그는 대사가 어려웠다고 했다. 생활감이 짙게 담겨 있어 연기할 때 쓰는 말이 아닌 것 같았다는 얘기였다. “입에 잘 붙지 않아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번에도 의사대다가 까칠한 성격을 가진 인물이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김준완’도 그런 캐릭터였다. 사실 정경호는 그런 예민한 인물을 자주 연기해왔다. 게다가 앞으로 공개될 작품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캐릭터를 맡았다고도 했다. 그는 “왜 자꾸 이런 기간 하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며 “핑계이긴 하지만 이런 인물들을 계속 연기하니가 살이 안 쪼인다”고 말하며 웃었다. “심지어 다음에 맡는 인물은 섬식장에까지 있다가요.” 하지만 그는 이미지를 탈피해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예전에는 하나의 이미지로 굳혀지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 안에서 다양한 연기를 하면 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경호는 “아무리 비슷한 역할이라고 해도 그 안에서 다른 점을 찾아내 연기하는 게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경호는 좋은 작품에 출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20년 간 연기하면서 많은 영화·드라마를 거쳤다. 잘 된 것도 있었지만, 정말 안 된 것도 있었다. 작품이 잘 됐



다고 함께한 사람들과 더 깊은 인연을 쌓은 게 아니었고, 잘 안 된 작품이었지만 끈끈한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작품은 안 남아도 사람은 남더라고요. 저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그는 어릴 땐 ‘나만 잘하면 된다’ ‘내 것만 잘하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을 함께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점

점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됐다고 했다. 정경호의 차기작은 드라마 ‘일타 스캔들’이다. 반찬 가게 사장과 수학 일타 강사의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정경호는 일타 강사 ‘최치열’을 맡아 반찬 가게 사장 ‘남행선’ 역의 전도연과 호흡을 맞춘다. “함께 로맨스 연기하는 걸 꿈꾸던 선배와 함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할 수 있게 노력해야죠.”



안정환·김성주 MBC, 포르투갈전 시청률 1위

MBC가 ‘2022 카타르 월드컵’ 한국·포르투갈전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 3일 님스쿠리아에 따르면, MBC가 전날 오후 10시~이날 오전 1시계 중계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예선 3차전 한국과 포르투갈 경기는 전국 시청률 16.9%를 찍었다. 2위 SBS는 11.2%를 기록했다. KBS는 4.4%로 가장 먼저 중계를 시작했음에도 MBC·SBS의 시청률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상파 3사 총합 시청률은 32.5%다. 이날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은 포르투갈에 2대0 이겼다. 전

반 5분 리카르도 호르타(브라가)에 선제골을 내줬지만, 전반 27분 김영권(울산)이 골을 넣으며 동점이었다. 이후 후반전에서 교체 투입된 황희찬이 경기 종료 5분을 남긴 상황에서 손흥민의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받아 골로 바로 연결시켜 역전했다. 이로써 한국은 2년 포르투갈을 상대로 값진 승리를 거두며 12년 만에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한국은 6일 오전 4시(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974 스타디움에서 브라질과 8강 티켓을 놓고 싸운다.

홍진영, 데뷔 15주년 앨범 발매

가수 홍진영이 2일 오후 6시 데뷔 15주년 기념 미니앨범 ‘컬러 무드(Color Mood)’를 발매했다. 자신의 주특기인 트로트가 아닌 팝 장르의 타이틀곡 ‘걸인 더 미러(Girl in the mirror)’를 내세웠다. 디즈니 작곡가 노에미 르그랑(Noemie Legrand), 라틴 음악 작곡가 디노 메단호지(Dino Medanhodzic), 싱어송라이터 도터(Dotter)가 곡 작업에 참여했고, 미국 가수 프롤리(Frawley)가 피쳐링했다. 프롤리는 최근 미국 음반 레이블 리퍼블릭 레코드(Republic Records)와 소속 계약을 맺는 등 주목 받고 있다. 올해 발표한 최신곡 ‘이프 아이 돈트 래프(I Don't Laugh)’, ‘아일 크



라이(I'll Cry)’가 틱톡 등에서 인기를 누렸다. 최근 내한했고 이날 홍진영의 미니앨범 쇼케이스에도 참석했다. 그녀는 “서울이 미국의 반대 편에 있지만 고층건물이 많아서 그런지 뉴욕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플로다레드·김재욱·제이컨·맥대디, ‘쇼미11’ 팀원미션서 탈락

케이블 음악채널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시즌11에서 팀 음원 미션 최종 탈락자가 결정됐다. 2일 방송된 ‘쇼미더머니 11’ 방송에서는 팀 음원 미션이 그려졌다. 특히 이번 시즌은 역대 최초 프로듀서가 함께 무대에 올라 이목을 끌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생존한 24명의 래퍼들은 음원 미션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지만 모두가 무대에 설 수는 없었다. 각 팀당 한 명의 래퍼가 반드시 팀을 떠나야 하는 하든 미션이 발표된 것. 본격 음원 미션을 앞두고 팀 단합의 시간을 가진 4팀 프로듀서들은 음원과 무대를 모두 고려한 방향으로 탈락자 선정을 고민했다. 그 결과 그릴즈 팀 키츠요시, 파이올린 팀 김도훈, 슬레이 팀 박명훈, 알젯 팀 언오피셜보이가 탈락자로 호명됐고, 이들은 아쉽게 무대 위에 오르지 못한 채 여정을 마쳐야 했다.

‘쇼미더머니’ 사상 관객과 처음으로 함께 하는 팀 음원 미션, 그 첫 번째 주자는 그릴즈 팀(릴보이X그루비툼)이었다. 베토벤 소나타 17번 ‘템페스트’에 드릴 장르를 접목한 신곡 ‘위하여’(We Higher)에 대해 그루비툼은 ‘축구 축제 시즌인 만큼 에너지 있고 성대한 경기장의 음악들, 그런 느낌이 나는 곡으로 작업을 해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릴즈 팀은 블라세의 임팩트 있는 래핑부터 관객석에서 등장한 노윤하 그리고 프로듀서 릴보이까지 이어진 무대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깔끔하게 떨어졌다. 정교한 랩의 흐름을 이어 받은 플로다레드, 칠린호미, 플라키엠 역시 존재감이 대단했다. 특히 이들은 아쉽게 탈락한 팀원 키츠요시를 사라웃 하는가 하면, 마지막 ‘엔딩요정’ 포즈로 보는 재미를 더해줬다.

팀 파이올린(더파이아웃X릴러말즈)은 한 번 들으면 잊혀지지 않는 ‘아저씨’ 비트로 관객 호응을 이끌었다. 진두지휘를 맡은 더파이아웃 무대에서 LP를 트는 장면으로 시작해 릴러말즈 첫 번째 빌보드 탄탄하게 공연의 큰 틀을 잡아줬다. 뒤이어 크루셜스타가 차원이 다른 힙합의 내공을 쏟아냈으며, NSW yoon 역시 ‘드릴 랩핑의 최적화’라는 수식어에 걸맞는 랩 스킬과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팀워크에 기여했다.

팀의 마스코트 다민이가 피날레를 장식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다는 더파이아웃 의견에 따라, 다민이는 유니크한 랩은 물론이고 카메라를 흔드는 비장의 퍼포먼스도 깜짝 준비했다. 다민이 무대를 본 박재범은 ‘킬링 포인트’라고 했고, 저스디스는 ‘다민이가 넥스트 제너레이션’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탄탄한 실력의 소유자 큐엠(QM)은 가사 실

‘쇼미더머니’ 시즌11, 팀 음원 미션 최종 탈락자 결정



수의 아쉬움을 남겼지만 그 실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무대를 보여줬으며, 무대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김재욱은 디테일의 부족을 파워 넘치는 래핑으로 확실하게 커버했다.

‘다크나이트’를 키워드로 내세운 슬레이 팀(박재범X슬룸)은 심플하면서도 신나는 느낌의 곡 ‘위(WE)’를 선보였다. 퍼포먼스에 강한 팀원들의 캐릭터를 고려해 만든 슬룸의 신곡이다. 박재범은 자신의 유령어인 ‘히’를 흑으로 점묘한 공연 설계로 눈호강, 귀호강의 즐거움을 펼쳐냈다.

앞선 미션에서 가사 실수를 했던 이영지는 음원 무대를 앞두고 제대로 칼을 간 모습이었다. 특히 복면을 쓰고 수갑을 찬 퍼포먼스를 아이디어로 제안해 박재범을 흡족하게 만들었으며, 폭발적인 래핑에 깜짝 트윙클 댄스까지 선보여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날 ‘반값’의 부상 후원을 보여준 신세인은 박재범, 슬룸이 ‘MVP’로 꼽을 정도로 감탄이 나올 만한 랩 디자인을 설계했다.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캐릭터라는 토이고와 매력적인 음색의 소유자인 잠비노, ‘콕스빌리’ 가면을 벗고 진정성 있게 도전 중인 제이컨 역시 실수 없이 무대를 마쳤다. 멤버 각각의 캐릭터와 더불어 팀워크까지 빛났던 팀 슬레이 무대에 다른 팀 프로듀서들과 참가자들도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팀 알젯(저스디스X알티)의 ‘마이웨이’(MY WAY) 무대는 때창의 절율이 느껴지는 한 편의 드라마였다. 대중성을 잡은 알티의 신곡에 멤버 각자의 삶과 스토리가 얹혀져 감동을 안겼던 무대이기도 하다. 저스디스의 싱인래프와 알티의 디제임으로 무대를 연 알젯 팀은 ‘랩

피플’ 던달릭 등장으로 분위기를 제대로 뒀다. 이후 잠재력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허성현과 ‘입에 드립이 달린 것 같다’는 호평을 받은 칸이 여유로운 무대 매너로 기세를 이어갔다.

이날 ‘지뻘 맥션생’ 캐릭터로 즐거움을 준 맥대디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사연을 진솔하게 털어놔 준비 과정에서부터 눈물샘을 자극했다. 하지만 이어진 무대에서 가사 실수를 피하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뽕 끝판왕’ 저스디스의 존재감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빛이 났다. ‘어벤저스’ 멤버 구성으로 관객들의 데창까지 이끈 알젯 팀의 무대에 로스의 등장은 클라이맥스라고 해도 좋을 만큼 절율이 뒤따랐다. 이들에 대한 진심을 랩으로 풀어낸 로스의 무대는 깊은 울림을 안기기에 충분했다.

모든 무대가 끝난 후 탈락자 발표의 시간이 다가왔다. 다행히 탈락자에게도 음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졌고, 그릴즈 팀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플로다레드를 탈락자로 선정했다.

파이올린 팀, 슬레이 팀, 알젯 팀에서는 각각 김재욱, 제이컨, 맥대디가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쇼미더머니 11’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로써 다음 판문을 함께 하게 될 래퍼는 각 팀당 4명씩 총 16명으로 추려졌다.

그릴즈 팀은 블라세, 노윤하, 플라키엠, 칠린호미가 이름을 올렸고, 파이올린 팀은 크루셜스타, NSW Yoon, 다민이, QM이 함께 한다. 이영지, 토이고, 잠비노, 신세인은 팀 슬레이의 라인업을 새로 구축했으며, 알젯 팀에서는 던달릭, 허성현, 칸, 로스가 다음 미션을 함께 할 수 있게 됐다.